

사설

문화재 관리 전담기구 절실

국보 4호인 고달사지 부도가 크게 훼손됐다. 누군가 도굴을 위해 훼손시켰다. 문화재의 도굴 또는 관리 부실이 어찌 오늘의 일은 아니다. 끊임없이 성보가 도굴·도난당하는 일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몇 년 전 조선시대 송광사 국사전에 봉안되었던 국사진영이 무려 16위 가운데 무려 13위가 도난당해 충격을 주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 충격으로 정부와 불교계가 본사를 중심으로 서둘러 성보 유물관 또는 박물관 건립을 추진해 왔다.

이렇듯 지금까지 성보의 도난을 막기 위해 도난 방지시설을 비롯하여 많은 비용과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성보의 도난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이는 근본적으로 성보를 보전관리하기 위한 기본 틀이 마련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 우선 현직인 관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바로 옆에서 지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문화재 도굴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문화재 밀매구조를 뿌리뽑는 것도 필수적이다. 또한 성보 보전관리에 관한 제도나 법률을 새롭게 정비하고 그리고 보전관리를 전담할 기구를 설립, 인재의 양성과 성보 보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원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불교계를 비롯 정부 그리고 학계와 일반 사회의 민간인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공익법인을 설립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문화관광부 산하에 등록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 버금가는, 아니 그보다 더 짜임새 있고 알찬 기구가 빠른 시일 안에 탄생되기를 기대한다.

‘북한산 폭거’ 배후 밝혀라

25일 새벽 발생한 ‘북한산 살리기 정진도량’ 폭력 유혈사태에 대한 불교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지탄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북한산 국립공원을 온전히 보전하려는 스님들과 환경단체의 노력을 1백20명의 폭력배를 동원해 억압하려 한 사건은 대단히 중대한 사태이다.

이러한 일은 일찍이 없었다. 환경운동에 대해 대규모 폭력배들을 동원해 억압했던 적도, 기도 중인 수행자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했던 적도 없었다. 이익을 내는 것이 기업의 목표일지라도 지켜야 할 도의가 있다. 이번 일을 덮어주면 이익을 위해서는 종교인의 충고한 뜻도 짓밟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로 남을 것이다. 이렇듯 우리는 우리 사회의 양심과 도덕은 발발할 곳이 없어진다. 23개 시민·종교단체들은 사건 발생 이튿날 ‘북한산 농성장 폭력행위 진상조사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폭력 행위의 배후를 밝혀내 줄 것을 촉구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폭력 현장을 지휘했던 몇몇 사람에게 의해 저질러진 단순한 일이라고 볼 수 없다는 데 동의한다. 폭력 행위의 배후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 조계종은 이미 이번 사건을 스님들간의 갈등으로 불어가는 불순한 의도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수사당국은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번 사건의 더욱 근본적인 원인은 국립공원 자연환경과 사찰의 수행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토록 돼 있는 현 노선을 결정한 데 있다. 북한산을 관통하는 공사를 중지하고, 대안노선을 협의하라는 주장은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국립공원인 북한산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방향에서 노선을 재검토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스님 중심 탈피 자율성 확보 신도회가 사찰운영 주체돼야”

조계사 신도회 워크숍

바람직한 사찰 신도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25일 동국대 다학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조계사 신도회 임원 워크숍은 이같은 물음에 해답을 찾아 나섰다. 워크숍에 참가한 주지 지홍스님과 사중 스님, 조계사 21개 신행단체 임원 60여명은 이와 관련한 중요 무원의 주제발제에 이어 핵심타겟하고도 열린 토론을 벌였다. 토론에서는 △임원 중심 구조에서 시스팀 중심 구조로 △불사나 행사 재단에 버금가는, 아니 그보다 더 짜임새 있고 알찬 기구가 빠른 시일 안에 탄생되기를 기대한다.

크화를 통한 개방성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특히 스님 중심의 관행을 과감히 벗고 신도회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신행단체 간, 신도 간에 ‘파트너십’을 확립해야 한다는 견해도 강력하게 제기됐다.

또한 참석자 대부분은 운영위원회 구성을 통한 신도회 업무 집중화, 각 신행단체의 원활한 지원에 위한 사무처 강화, 신도임원 지도력 및 실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실시, 현실에 맞는 신도회 스님 중심 구조로 △불사나 행사 재단에서 신행공동체 중심으로 △각 신행단체간의 폐쇄성을 네트워크화

토론 내용은 대부분 직설적이었 다. 신도회 임원들은 “사중의 권한 상당부분을 신도회로 이양해야 한다” 신행단체 간에 반목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지역법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사중과 도반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주지 지홍스님을 비롯한 사중 스님들은 “스님, 종무원, 신도회의 역할분담이 돼야 한다. 앞으로는 신도회 중심의 사찰운영이 이뤄져야 한다” “신도회 스스로 정책기획 역량을 늘려야 한다” “사찰 입장에 서서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가”라며 신도회 임원들의 한계를 강하게 지적하기도 했다.

한명우 기자 nmwhan@buddhapia.com



△해인사에서 평민대장경을 살펴보고 있는 중국불교협회 대표자들. 이들은 “한국불교의 전통과 우수한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평민대장경을 보니 너무나 감동적이다”며 감탄을 연발했다. 해인사=고영배 기자

중국불교협회 대표 17명 방한

사찰·승가교육시설·불교문화재 등 시찰

조계종 공식초청으로 중국불교협회 도술인 부회장, 장림 부부서실장 겸 국제부주임, 오대산 아미산 보타산 구화산등 중국 4대 산문 대표, 중국 3대불교전 대표(대승티베트 남방), 8개성 불교협회장등 17명이 25일부터 29일까지 한국을 방문했다.

방문단은 25일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의 만찬에 참석한 뒤 26일부터 직지사, 해인사, 불국사석굴암, 선홍사, 낙산사 등을 방문하여 전통승가교육시설과 불교문화재 등 한국불교의 현황을 둘러보고 각 사찰주지스님들과의 대화를 통해 우의를 다졌다. 김원우 기자

1200사찰 주지 대상 포교지표조사

연말까지 백서 발간, ‘포교지도’ 자료로 활용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은 최근 전국 본·말사 1200여 주지스님을 대상으로 법회, 수련회, 신도교육, 신도회 활동, 지역 포교, 재가단체 지원 여부 등을 포괄적으로 묻는 포교지표 조사에 들어갔다.

포교원은 지난 7월 11~12일 서울 강원지역 교구 본말사 주지 연

수를 시작으로 오는 10월 1일 개최되는 제주지역 본말사 주지 연수까지 포교지표 조사를 시행, 연말까지 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포교지표 조사는 총 43개 문항, 85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계종 사찰의 포교현황에 대한 최초의 광범위한 설문조사로 도출

되는 이번 백서는 포교 정책 입안을 위한 자료는 물론 포교원의 ‘포교 지도’ 작성에 필요한 데이터로 활용될 전망이다.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될 예정인 포교 지도는 사찰의 각종 포교활동 현황을 보여주는 지도다. 불자가 원하는 다양한 신행 정보(각종 수련회, 계층 및 연령별 법회, 문화행사, 신도교육, 사회봉사 등을 검색하거나 지도를 클릭해, 원하는 사찰에서 신행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이버 사찰신행 종합 안내소’ 역할을 하게 된다. 김재경 기자

문화부 차관에 박문석씨

19일 문화관광부 차관에 박문석 전 종무실장(55·사진)이 임명됐다.

박문석 차관은 문화정책국장, 기획관리실장, 종무실장 등 문화관광부 요직을 두루 역임하는 등 합리적인 사고와 꼼꼼한 일 처리 능력을 인정받아 이번에 승진했다

99년 계간 ‘오늘의 문화’를 통해 시인으로도 데뷔한 박차관은 <뉴미디어시대의 방송과 저작권> <멀티미디어와 현대저작권법> 등을 저술했다. 김원우 기자

‘현대’ 만평 김영민

사찰운영, 공동체정신으로...

한국불교 총본산 성역화 불사 견지동일대 부지매입 100억 모연

조계종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건립 불사를 중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100억원 목표의 ‘한국불교총본산 성역화 불사 모연운동’을 전개한다.

조계종은 22일 “이달부터 2003년 12월까지 18개월에 걸쳐 진행되는 한국불교총본산 성역화 불사 모연운동을 전개하겠다”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건립과 더불어 견지동 45번지 일대 부지매입을 통해 주변지역을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모연기구로 한국불교총본산 성역화불사 추진위원회(총무 정대스님, 위원장 총무원장, 추진위원 교구본사 주지를 구성키로 했다.

조계종은 기금모연을 위해 ARS 모금전환 개설과 기념관 1평 짓기운동, 원불모시기, 관세음보살 모시기, 1인1백돌쌓기, 땅한평 사기 캠페인을 전개키로 했다. 김원우 기자

종비생 관리감독 강화

조계종, 전원 수행관 임방

조계종 교육위원회(위원장 지오는 22일 교육원 회의실에서 등 학년 종비생 관리 방안과 관련한 교육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종비생 전원을 수행관 임방시키는 등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교육위원들은 △종비생 전원이 의무적으로 수행관에 입방토록 하며, △수행관장이 상주해 수행점수를 확정에 반영하며 △내년부터는 일반 학생이 불교대학 재학 중 출가하는 경우 1학년 출가만 허용키로 했다. 교육원은 이같은 내용을 교육원회의에서 검토한 뒤 2학기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한명우 기자

제보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보창구를 상설하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안(사건, 사고, 미담, 사진 등)에 대한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도 좋습니다. 기사화되는 제보 가운데 불교발전과 기사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또한 지면제자와 관련한 문의나 투고, 의견제기는 물론 출판과 관련한 각종 제언도 환영합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한국전문신문협회 윤리강령에 의거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제보전화: 722-4162 FAX: 737-0698 인터넷 주소: buddhanews.com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발행·편집인: 김광삼 인터넷: 불교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소평: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인쇄인: 김규석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료: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www.moxacau.com

1,400만 흡연가들의 대부분이 간절히 바라던 담배 대용품이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

썩 은사람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식물입니다.

담배처럼 피우면서 썩향을 음미하고 니코틴이 전혀 없는 썩 100% BLUE(블루)는 금연초나담배가 아닙니다. 국민 형제님들과 불자님들께서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사용방법
담배처럼 피우되, 연기를 빨아 머금고 잠깐 있다가 썩어 낸다. 녹차 등 여러 종류의 차와 음료를 마시면서 피우면 더욱 좋다.

■ 본 제품 설명
세계 흡연가들을 위하여 세계 최초로 청정스님에 의하여 발명된 제품으로서 대한민국, 중국, 일본, 미국에도 특허 출원중이며, 대한민국 특허청으로부터 기술평가까지 결정 등록된 제품입니다.

썩은 국초(國草)이고 사람 몸을 이롭게 하는 영초(靈草)이며 환상의 식물이다.

※썩썩이 탈 때 생겨나는 불빛은 '적외선'과 같은 효과를 낸다.
※썩썩을 태울 때 나오는 썩 연기는 각종 균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다.
※본 제품은 방안에 피우면 향 대용으로도 사용됩니다.

제품 구입은 아래 대리점으로 문의 바랍니다.

시·도	구역	연락처		
		전화	휴대폰	
서울	강남, 송파, 서초, 강동	02)400-9043	019)263-3875	
	광진, 동대문, 성동	02)452-9453	01)1479-0950	
	관악, 영등포, 동작	02)875-8596	01)1788-8596	
	노원, 도봉, 중랑, 강북, 동구, 강북, 성북	02)948-6345	018)339-1760	
	은평, 서대문, 미포, 용산	02)358-5875	019)330-2075	
	구로, 금천, 경기 광명	02)830-5566	01)19985-3303	
	양천, 강서, 부천	02)663-9229	01)19988-2050	
	경기	고양, 파주	03)1905-2882	01)1448-1562
		안산, 시흥, 군포	03)1485-7909	01)1725-7909
		안양, 의왕, 과천	03)1416-0762	01)1358-0761
인천	수원, 성남, 하남, 광주	03)1705-3533	01)7208-1746	
	의정부, 동두천, 양주, 포천, 연천	03)1877-6999	01)19988-2050	
	안성, 평택, 용인, 오산, 이천, 여주, 화성	03)1671-2688	01)7215-0950	
	구리, 남양주, 청량, 가평	03)1876-4705	01)1811-8466	
대전	대전광역시	032)434-4340	01)1630-8888	
	강화, 김포		018)362-7036	
강원	강원도	033)671-8780	01)7215-8780	
	대전 충남	042)632-5168	01)1403-5558	
충북	충북	043)854-5585	01)7246-5136	
	경주, 전남, 전북	경주광역시, 전남, 전북	053)843-0314	01)1672-4955
부산	부산광역시, 경남	051)621-1633	01)1561-4065	
	대구, 경북	대구광역시, 경북	053)643-0809	018)519-7758
울산	울산광역시	052)223-5470	01)1881-1906	

■ 발명가: 대인불교 건강복지회 대표 청정 교운암 제조원: (주)황금산트레이드 판매원: 불부판매주식회사 호02)663-9229